

# 곽밥에 깃든 사랑

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 초급부 3학년  
조아림

3월 어느날 우리 학교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유행때문에 임시휴교가 되었습니다.

2학년생활도 앞으로 몇주일이 남았는데 학교에 못 나가게 되니 어떻게 될지 참으로 불안했어요.

나의 아버지, 어머니는 매일 일하러 나가시기에 그동안 나와 유치반동생은 우리 학교와 유치반에서 진행되는 학동보육에 참가하였습니다. 나는 학년이 같은 동무가 적어 좀 슬펐어요.

어느날 우리 학교에 점심곽밥을 마련해주시는 곽밥집아저씨가 찾아오시여 임시휴교기간 학동보육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공짜로 곽밥을 선물해주겠다고 하셨어요.

그 소식을 듣고 아주 놀라 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.

곽밥은 비빔밥이랑 불고기밥이랑 매일 내용이 달랐어요. 잡채나 나물, 과일까지 들어있어 늘 푸짐하게 차려주시니 나는 참으로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요.

곽밥집주인은 우리 학교 중급부 3학년 오빠의 부모님이십니다. 우리 엄마가 쌀이 떨어져 집근처 슈퍼에서도 팔지 않아 고민하고계실 때 곽밥집아주머니가 쌀은 있는가고 연락을 주셨대요.

가장 힘들 때 우리 학교, 우리 유치반, 우리 선생님, 우리 동포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곽밥집아저씨, 아주머니가 참으로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고 느꼈어요.

맛있는 곽밥을 마련해주신 아저씨, 아주머니 참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.

곽밥에 가득찬 아저씨,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.